**제3세션 : 근대 일본과 한국 인식**

**사회자:**

김홍우(서울대학교)

**주제 및 발표자:**

1) 유불란(경희대학교), ’탈아론’의 그늘과 “高嶋 교과서 재판” : 마루야마의 후쿠자와 변론과 관련해서

2) 박홍규(고려대학교),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주의

3) 강동국(나고야대학), 타자감각의 이론과 실제

**토론자:**

마쯔모토 레이지(와세다대학), 쯔즈키 쯔토무(신슈대학), 스기타 아쯔시(호세이대학), 가루베 다다시(도쿄대학)

**유불란 – ’탈아론’의 그늘과 “高嶋 교과서 재판” : 마루야마의 후쿠자와 변론과 관련해서**

지금의 동아시아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란 어떤 존재이며 그의 주장과 견해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교과서 문제를 바라보았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역사책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둘러싼 대논쟁이 벌어졌다. 한국 역사학계의 원로들은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그 자긍심을 위해 국민 모두가 숙지해야 할 역사적 소재들을 언급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국의 역사와 상대의 역사가 연관돼있어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탈아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전개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교과서 공방은 교육 외적 문제로부터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중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관련 판례와 경험을 쌓아온 일본의 경우 객관적 학설에 입각한 통설적 견해와 이를 판가름하는 실질적 기준으로써 작용하는 유력한 반대 여론의 존재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주요한 역사적 이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얼마나 정확한가 등을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에 대해 마루야마 대 야스카와의 비판론이 전개됐다. 이 논변의 틀(특이한 생각, 일반적 생각, 다른 생각 등)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춰보겠다. .

 일본 교과서 검정 재판에서 탈아론에 관해서는 세가지 판결이 이뤄졌다. 첫째, 탈아입구로 탈아론을 요약할 수 있는가, 둘째, 탈아입구에 대해 인용해둔 교과서 집필자의 주석은 올바른가, 셋째, 후쿠자와의 탈아론적 발상은 일관되었는가다. 모두 학설상 대립 중이다. 탈아입구적 발상과 일관성 문제는 삼국 모두에게 있어 첨예한 문제다. 이 문제를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법정에서의 마루야마 마사오의 후쿠자와론이다. 탈아론의 일반적, 상식적인 이해란 무엇인가?

현재 일본의 탈아론에 대한 일반론으로 남게 된 것은 후쿠자와론과 마루야마론이다. 여기서 큰 문제는 후쿠자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 것만이 아니다. 현재 탈아론은 후쿠자와에게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왜 탈아론은 계속 껍데기처럼 남아서 활용되는지 의문스럽다. 통속탈아론, 그것과 긴밀하게 얽힌 통속 마루야마론의 경우 협의의 탈아론과도, 마루야마 마사오 본래의 논의로부터도 떨어져 나온 듯 보인다.

 광의의 탈아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우리의 마루야마 마사오를 고민해보는데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박홍규 –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주의**

작년 학술회의 당시 몇몇 학자들은, 마루야마 마사오 탄생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될 2014년 학술회의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단점과 비판점을 지적해보자고 논의한 바 있다. 그에 입각해 나는 오늘 발표에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그는 일본주의, 특수주의에 대해 끝까지 경계심을 유지하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나는 일본주의를 ‘일본의 우월성과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정의했다. 일본주의는 18세기에 노리나가에 의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사회, 정치 속에서 개화하게 된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탈아론, 국권론, 황실론을 이야기했다. 나는 후쿠자와가 탈아론을 말했다고해서 그가 일본주의라고 보진 않는다. 단지 일본주의가 개화화는 상황 속에서 일본주의에 침윤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마루야마 마사오의 대응은 근대 내셔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싸워왔던 일본주의는 전후에는 진화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고층론과 같은 사상으로서 일본주의를 경계했으나 다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전후 일본의 위대함을 찬양한 에즈라 보겔은 ‘Japan as No.1’이라는 책을 서술하였다. 보겔은 일본의 경제성장이 메이지 이후의 새로운 제도들로 인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보겔은 일본의 경제성장의 이유로 미국의 개인주의와는 다른 일본의 집단주의를 지목했다. 이러한 제도적 우월상의 배경에는 집단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일본의 신도, 국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경우, 고층론을 통해 경계를 했으나, 고도성장기 일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부를 겨누지 못한 채로 이런 시대를 향유한 건 아닌가. 그렇기에 마루야마가 1986년 에 쓴 ‘문명론의 개략’이라는 책은, 일본주의에 침윤된 상태에서 나온 글이라고 생각한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의 고도 성장 기간 중에 일본주의를 비판할 여지를 놓친 것은 아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쿠자와의 잔재를 물려 받은 것은 아닐까 싶다.

현 아베 총리의 언행, 이에 동조하는 일본인의 모습에서 일본주의의 그림자를 느낀다. 여기에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임도 있을지 모른다. 또한 마루야마 마사오에게서 이런 잔영을 벗겨낼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강동국 – 타자감각의 이론과 실제**

 마루야마 마사오의 한국인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는 한국 사상에 대한 비 주체성을 강조하고 한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마루야마 마사오가 시기별로 한국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없다. 나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정치사상연구자, 국제정치경제학자, 전후지식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나 정리를 해보았다. 만약 마루야마 마사오가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에 문제점이 있을 시, 이를 보완할 내용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 중에 존재하는가를 타자감각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945년까지의 마루야마 마사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기본적으로 헤겔의 역사철학에 기반을 두고 아시아의 정체성을 분석했으며, 여기에 대립되는 일본의 일본주의를 비판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유교를 지속한 중국을 비판하지만, 조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유교비판은 전형적인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에 가깝지만, 조선에서의 군 경험이 그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1960년대에는 이승만 정권과 미국의 맥카시즘 등이 파시즘화 되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한국은 비교 정치의 대상이었으나 특별한 의미는 없었다고 본다.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주된 논의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에 주요 논의는 정치사상가, 전후지식인으로서의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조선 유교를 배운 후 마루야마 마사오의 태도가 변했는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마루야마 마사오는 보편적인 발전 단계론을 끝까지 유지했기에, 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는 후쿠자와 유키치를 지지하였으므로 근대화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전후문제를 겪으며 다시 부상한 논의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마루야마 마사오의 비판이 있다. 그는 종군위안부는 보편적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사과에 대해서는 서양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내재적으로 한국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타자감각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타자감각은 중요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타자감각은 우리와 남의 구별, 일본과 조선의 구별을 지양한다. 또한 서양이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도 사과를 안 한다는 주장이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토론1** – **마쯔모토 레이지 교수**

▷박홍규 교수, 강동국 교수에게

 강 선생님의 경우 마루야마 마사오의 한국인식에 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일본은 서양의 노예가 되지 않고자 노력해 노예들의 주인이 됐다. 결국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은 아직도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인간이기에 마루야마 마사오도 어느 정도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였다.

▷와타나베 교수에게

 와타나베 선생님의 화폐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과연 마루야마 마사오가 정답을 가지고 있었나 의구심이 든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정답을 발견하는 학자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는 타입이라고 생각한다.

**토론2** – **쯔즈키 쯔토무 교수**

▷박홍규 교수에게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일본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교수의 의견은 이런 문화주의적인 내용과는 좀 다른 듯하다.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박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하다. 그가 적극적으로 일본주의에 공헌을 한 건지, 우연히 공헌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하다. 또한 1979년도에 철저히 일본주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인지, 고층이론을 통해 열심히 싸웠지만 졌다는 것인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강동국 교수에게

마루야마 마사오의 가정환경은 중요하다. 그의 아버지는 기자생활을 하며 한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아버지 시대의 지식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후쿠자와와 달리 아시아에 대한 언급이나 아시아인과의 교류도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학생들을 통해 아시아를 발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굉장히 늦게 아시아를 보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토론3** – **스기타 아쯔시 교수**

나는 마루야먀 마사오나 일본사상 전공자는 아니다. 보편과 특수성의 문제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의 특수성이 그가 서구에서 발견한 보편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관여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루야마 마사오는 한국, 중국과 함께 더불어서 보편성을 발견하는 노력은 없었으며 아시아주의적인 시각은 결여돼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자와의 탈아입구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탈아’보다는 ‘입구’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왜 그는 서양의 보편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마루야마 마사오가 아시아의 나쁜 점을 비판한 것이라면 이는 부분적인 자기비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 마루야마는 왜 타인이 자기비판을 하는 나를 비판하는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서구의 보편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특수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탈아론을 일관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아시아를 비판하는 형태로 보편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소위 나쁜 아시아를 바라보는 아시아인의 감정 문제다. 그들은 마루야마 마사오에게 왜 아시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특수성을 비판하여 보편성으로 가는 방법론의 문제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특수성을 마치 병처럼 다룸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특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있으므로, 특수성을 추구하는 논리를 어떻게 보편성으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하다.

**토론4** – **가루베 다다시 교수**

▷유불란 교수에게

일본에서는 식민지,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의 입장이 잡지, 뉴스 등에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인들의 일부 우익 성향 내용만 언급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동구 교수에게

 마루야마 마사오가 위안부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언급하셨는데, 마루야마 마사오는 말년에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서명운동에 두 번 참여하였다. 타자의식은 남을 이해함으로써 갖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타자의식을 만들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쉽다. 우리는 이것을 과제로 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중 QnA**

 **질문 1 – 김인탁, 전 홍익대 교수**

왜 후쿠자와 유키치가 그토록 유교를 미워한 것이며, 서양의 제국주의를 배워서 왜 보편적인 가치 달성이 아닌 침략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질문 2 – 노병호 강사**

▷강동국 교수에 대해

선생님께서 마루야마에 대한 기술들이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위안부 같은 문제가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다.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것이 비판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질문 3 – 성균관대 정희선 연구원**

마루야마 마사오로부터 현재 이 시점에서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 4 – 한림대 이상석 교수**

▷박홍규 교수에게

교수님은 일본주의를 일본우월주의로 정의했는데, 마루야마 마사오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답변 1- 유불란 교수**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자극적인,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의 교류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걸 클로즈업하면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답변 2- 박홍규 교수**

마루야마 마사오와, 후쿠자와가 일본주의라고 말하진 않았다. 다만 끝까지 맞서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진 못했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된다. 나는 전후에 고도 성장기를 지탱한 기반이 변형된 일본주의이고, 마루야마 마사오는 이런 변형되고 진화된 일본주의, 그것이 표면화된 경제주의에 대해 치밀하게 대항 및 투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선진국에 도달한 일본을 향유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타자감각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는 타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이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루야마 마사오가 본 한국은 삼류에서 이류로 올라온 정도고 중국도 삼류국가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논의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이는 후쿠자와가 탈아한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기에, 위안부 반대 사인을 한 것이 아닐까.

**답변 3- 강동국 교수**

▷김인탁 교수에게

하급무사출신인 아버지를 둔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의 신분제적인 봉건체제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유교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중국의 과거제도를 통해 볼 때 착각이다. 일본식 유교를 통해 한,중의 유교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병호 강사에게

포스트콜로니즘에서는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국에 대한 언급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논의가 있었다. 더 논의해볼 텍스트가 있는지는 계속 조사 중이며, 마루야마 마사오의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

정치사상연구자, 국제정치경제학자 등 마루야마 마사오의 여러 면모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자면, 한국에 대한 상을 조합하여 억지로 마루야마 마사오의 종합적인 상으로 만드는 데엔 부작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이들을 종합하기보다는 병렬시키는 중이다. 만약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는 연구를 통해 알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4- 김홍우 교수**

마루야먀 마사오의 두 제자인 와타나베, 박충석 교수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듯 하다. 내 생각에는 정치생활을 두 가지 시각에서 다르게 보는 듯 하다. 와타나베 선생의 경우 생활의 관점에서 정치를 본다면, 박충석 선생은 정치사상의 입장에서 생활을 본다.

**답변 5-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

마루야마 마사오의 정치사상사는 그의 문제의식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다. 문제의식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선생과 나의 다른 점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내게 더 크다는 점이고, 마루야마 마사오와 나의 다른 점은 진보를 믿고 있는지의 여부다.

**답변 6- 박충석 교수**

일반적으로 주학에서 실학으로 가는 것을 진보라고 보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는 바람직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꼭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와타나베 선생과 표현 방법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한국정치사상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이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다른 이유는 없다.